

A Postscript of Graduation from the Course of Being an Analyst

Hyeun Sook Kang

Dr. Kang's Psychiatric Clinic, Seoul, Korea

분석가 과정 졸업 후기

강 현 숙

강신경정신과의원

2009년 국제분석학회 소속의 한국 정신분석연구회의 '분석가(analyst) 양성 과정'에 1기로 입학해서, 정신분석 공부를 시작해 2014년 말에 졸업을 했으니, 졸업까지 했수로 6년이 걸렸다. 한국에서는 처음 생긴 과정의 첫 졸업이어서 여러 선생님들께 과분한 축하를 받았다. 감사드린다.

공부를 시작했던, 2009년 봄은 나에게 특별한 시기였다. 두 아이의 긴 입시전쟁이 막을 내렸고, 평생 살 것이라 생각하고 오래 살아오던 집에서 별안간 이사를 해야만 했었다. 새로 입학한 둘째 아들의 통학을 더 편리하게 해주려는 시도였다. 이사까지 마친 그 해 봄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할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그리고 환자를 보는 바쁜 일상 업무에 치지면서, 그런 나의 일상이 단조롭게 느껴졌다.

정신분석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동기는, 나는 소설가들로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병'에 전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 병을 아직 고치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내 무의식과 환상 속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구를 항시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학적 재능도 부족했고, 나 자신만의 퇴행과 숙고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본 적도 없었다. 다

른 어떤 소원보다 고립되어 몰두하고 싶은 소원은 강렬한 것이었다. 정신분석 공부를 시작한 것은 나의 '이야기하고 싶은 병'을 해결할 현실적인 타협형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계기는 2009년 봄에 꾸었던 '생생한 꿈'에 대해 나름대로의 탐색을 했었고, 그 꿈이 내가 분석 공부를 별안간 시작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나 내가 '정신분석가 양성 과정'에 지원할 때는 이미 지원 마감일이 지나있었는데, 다행히 추가 모집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었다. 물론 분석 공부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비용에 대해 신중히 고려를 했었다. 나는 그동안 성실히 일해 왔고 그 정도는 나 자신을 위해 쓸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족들도 내 결정을 지지해 줬다. 그리고 정신과의사로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해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다니 훌륭한 명분도 갖춘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2009년 첫 수업 후에, 8명의 동료 수련생들과 강사였던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 첫 수업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었다. 열기가 가득했던 늦여름 밤이 마치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감미롭고 생생하다. 2009년 첫 학기의 수업은 Freud 초기 이론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원저 강독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식 토론 수업은 흥미진진했으며, 우리 기수 동료들의 수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나도 내 나이와 토요일 오후의 피곤함도 잊은 채 공부 재미에 빠져들었다. 읽어갈 자료의 분량이 엄청났지만 늦은 나이에 책가방 메고 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다. 1학년 2학기부터는, 소아 발달의 이론과 실제 분석의 시작(opening), 전이, 역전이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Freud의 그 유명한 분석 사례들을 자세히 읽었다. 분석가 양성과정의 수업(didactic course) 진행과정은 실제 분석의 시행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¹The Korean Psychoanalytic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Association.

Received: March 22, 2015 Revised: April 13, 2015

Accepted: April 20, 2015

Address for correspondence: Hyeun Sook Kang, MD

Dr. Kang's Psychiatric Clinic, 344 Sillim-ro, Gwanak-gu, Seoul 151-890, Korea

Tel: +82-2-871-7121, Fax: +82-2-871-7122

E-mail: vhs kang@daum.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진행되어지도록 짜여있었다. 이 무렵 첫 분석환자를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후, 분석환자를 보며 개인 지도감독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신의 분석환자를 보며 부딪치는 실제의 어려움과 예를 서로 이야기하며 이론을 보다 생생하게 숙지할 수 있었다. 2학년이 되면서 Freud의 원저와 다른 많은 분석가들의 다양한 자료들을 읽으며 분석 중기의 기법, 꿈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기법, 신경생물학적 뇌-마음 개념에 대한 최근 이론에 대한 숙지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고전적 분석이론부터 최신 신경해부 생리학까지 자세히 파고들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통합하는 공부였다. 이 무렵부터 각자의 분석 증례에 대한 정기적 사례 토의(regular case conference)와 한 증례에 대해 십 회씩 지속되는 사례 토의(continuous case conference)가 시작되었다.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때까지가 분석 공부에서, 즐거운 신혼 기간이었다. 3학년으로 올라가며 자신이 봐야 하는 분석환자도 늘어나고 분석이 중기로 가며, 분석 상황에서 생기는 어려움도 증대되었다. 전이의 전쟁터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며 치료적으로 분석을 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도감독자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이었다. 이 무척 교수님, 김미경 선생님, David Sachs 선생님 세 분의 지도감독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통 정신분석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 세 가지 증례의 환자가 모두 다르듯이, 세 분 모두에게서, 그 선생님께만 배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심오한 비법을 전수받은 듯한 개인적인 느낌을 가진다. 동시에 분석환자를 보며 부딪치는 실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의논할 수 있는 날이 동료들과 만나는 토요일이었다. 동료들에게서 충전되는 에너지도 상당한 것이었다. 진지하며 학구적이고 정이 깊은 1기 수련생 동료들로부터 받은 도움도 컸다. 같이 만나 자유로이 토론하고 그 열정에 자극을 받으며, 방전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힘든 중에도 분석 공부를 재미있게 해 나갈 수 있었다. 3학년과 4학년의 수업계획은 대상관계이론, 자아심리학, Klein 이론, Lacan 이론 등을 두루 공부하고 그 임상적 적용에 대한 분석 논문을 읽었다. 분석의 종결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게 공부했다. 4학년이었던 2013년이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였다. 개원의로서 병원 일은 일대로 하면서, 매주 읽어야 할 자료는 산더미였고, 세 명을 주 4회 분석해가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니 잠시도 한눈팔 틈이 없었고 점심시간과 일과 후인 저녁시간도 쪼개서 다 바쳐야 했다. 수 년간의 분석과정을 통해 환자가 자신

을 이해하는 힘과 자아의 기능이 증대되었음에도 분석의 종결과 이별이 맞물려 다루어지는 시기여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기였다.

공부도 끝나가고, 수업의 주제도 분석 주제도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었다. 분석의 과정은 인생만큼이나 변화무쌍하며,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탐정소 설치럼 결말을 알 수 없었다. 초보자였던 나로서는 분석환자가 변화하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같이 겪는 것이 놀라운 경험이었다. 모든 노고가 상쇄될 만한 경험이었다. 수업의 첫 시간이 기억나듯 마지막 수업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3년 7월 조두영 교수님과 Ingmar Bergman 감독의 'Wild Strawberries' 영화를 감상하고 동료들과 분석적 소감을 나누었다. 4년간의 수업이 끝나는 여유로움을 영화감상으로 누리고, 영화에 대한 각자의 자유연상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두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흥분분함과 여유로움, 뿌듯함, 아쉬움을 인사동 한식집 뜰에서 같이 식사하며 누릴 수 있었다. 푸르러지는 여름의 정취가 밤의 어스름함에 녹아 그냥 뜰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날이었다. 분석이 양성과정의 4년간의 정규 수업과정이 끝나도 정기적인 사례토론 모임, 환자 분석, 지도감독은 계속되었다.

분석 공부를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나 자신에 대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다 내 과거와 연관이 있으나, 현재의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분석적으로 말하면, 나의 전이와 무의식의 중요한 부산물들을 내가 인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고 온전하게 변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도 역시 환상일 것이다. 그러나 어렵듯이 알 때보다는, 과거가 주는 구속력에서 벗어나 조금 더 관조하고,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을 가진다. 이 과정을 변함없는 태도로 지지해주고 도와준 홍택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신분석의 초석을 놓아주신 조두영 선생님 이하 원로 선생님들께, 그리고 학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석학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시험시 영어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긴장했었는데, 시험과정 중 부족한 영어를 도와주시며 지지해주신 정도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4년간의 수업을 성심으로 지도해주신 이무석 교수님, 정도연 교수님, 유재학 교수님, 홍택유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Dr. Calvin Colarusso, 정선주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